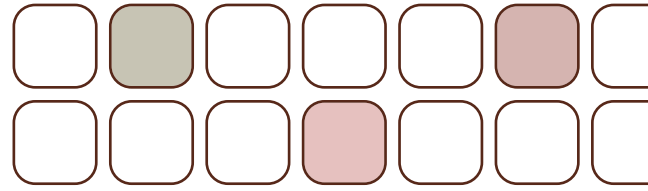


VD RADAR



벤처관련

중기청, 2009년 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확정·공고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 중소기업 기술
개발사업 선도와제의 지원을 위한 고부
가치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가 9월 중 착수되고, 주요 제조업종별 핵심품목 및 기술을 주제로 한 '중소기업
유망기술연구회'도 20여 개가 시범적으로 구성·운영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공고과제(제안요청서, RFP :
Request For Proposal) 발굴을 위한 2009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수
요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개발을 희망하는 유망기술에 대해 9
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신청·접수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지정된 '2009년도 중소기업 기술수
요조사 제안서' 양식을 사용하여 온라인(<http://www.smttech.gov.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상공회의소, 벤처기업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충북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제천시내 중소기업들의 기
술개발과 마케팅 성과물들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관리화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내 사업장 또는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사업장 등록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다. 접수기간은 11월 30일
까지다.

이노비즈협회 방위사업청, 국방사업 참여 모색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방위사업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국방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국방사업 진출 확대 등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국방사업 분야에서 대기업 중심 전문화 현상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협회와 방위사업청은 연간 3조 원이 넘는 국방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국방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로 했다.

'창업투자 전문가 과정' 시범대학원에 KAST 선정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전문가과정' 시범대학원으로 KAIST를 선정했다

이번 과정은 한 학기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며 과정수료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자격이 인정된다.

학생들은 현직 벤처투자심사역과 변호사 등 전문 강사로부터 투자기법 기업
평가, 리스크관리, 세무, 법률 등 벤처투자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 실무에 대한 고급과정으로 향후 벤처투자전문가는 물론 직접
벤처기업가가 되려는 학생들의 소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보드, (주)인산가 신규지정

한국증권업협회는 (주)인산가 대표 김윤세(www.insanga.co.kr)의 프리보드 신규지정을
승인하였으며, 이 회사 프리보드 지정법인은 66사 번째 회사, 알바 40사가 되었다

(주)인산가는 1992년 3월에 설립된 경남 함양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로 주요제품
은 죽염 종류, 옛류제품이며, 농수임산물의 도소매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지역벤처

전남도, 300억 규모 'J-펀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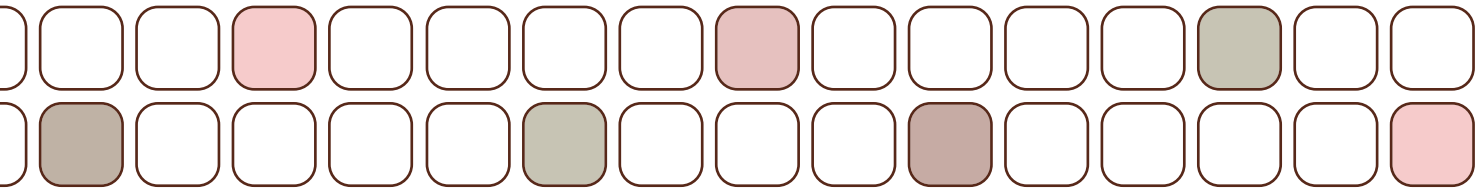
광주와 전남도가 지역벤처기업 육성
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금
융권과 손잡고 올 연말까지 전략산업투자
조합을 출범하고, 신생 벤처기업을 본격
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도에 따르면 우수 기술을 확보하고도 창업자금 부족 등으로 기
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칭 'J-펀드'
(전략산업투자조합)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J-펀드'는 금융사들을 조합원으로 끌어 모아 펀드를 조성, 벤처·중소기업
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우선주 배당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
는 투자대상을 설립 7년 이하인 비상장사이면서 IT, BI, 생명공학 등 4대 전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제한, 신생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분야 산·학·연·관 기술교류회 개최

포항지역 바이오밸리협의회가 주최하고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 생명공학연
구센터가 후원하는 제 2차 바이오분야 산·학·연·관 기술교류회가 8월 29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포항지역 바이오벤처, 연구기관, 포항시 첨단과학 담당 공



무원 포항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들어 두번째로 열린 바이오 기술교류회는 2008년 지역의 바이오벤처 연구 기관 포항시, 포항테크노파크의 바이오 R&D 및 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어사업및연구아이디어 교환과 친목교류를 위하여 정기적인모임을 가져왔다.

광주,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준공

디지털정보기전산업을 이끌어갈 광주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가 광주첨단지구에 들어섰다.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는 기존의 디지털 기기에 정보통신 기술을 묶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 기술로 카메라와 MP3기능이 결합한 휴대전화와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DMB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부품센터는 전체면적 7천40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됐으며 디지털 가전분야 상품 기술 개발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강원바이오·메디컬펀드’ 공식 출범

강원도는 9월 10일자로 ‘강원바이오·메디컬펀드(1호)’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펀드는 바이오, 의료기기 등 전략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육성과 외지의 유망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데 활용되며, 기업의 자금난 해소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 펀드의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지난 2월 투자조합 결성과 펀드 운영 및 투자기업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할 창업투자회사(업무집행조합원)를 공개 모집하여 (주)이앤네트웍스벤처투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 펀드의 총 출자금의 70% 이상을 지역 업체와 지역으로 이전할 업체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2호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ETRI 노사, 지역 어르신께 직접 개발한 골도전화기 전달

ETRI 노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최문기 위원장 한주동)는 원내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대전 유성구 지역난청 어르신들에게 연구원에서 직접 개발한

골도전화기를 지원하는 ‘골도전화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골도전화기는 1997년 ETRI가(주)열림기술에 기술이전 하였으며, 소리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머리뼈를 통해 청각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소리를 전달하는 획기적인 신기술인 ‘골도진동자’ 기술이 ‘골도전화기’라는 상품으로 상용화되어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소리가 아닌 수화기의 진동을 직접 두뇌로 전달함으로써 노인청년청 및 소음성 난청을 앓는 이들도 전화통화를 가능케 하는 ETRI에서 개발한 복지 기술이다.

한국화학연구원, 제7회 국가 R&D P포럼 개최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오현승)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9월 17일 연구원 강당에서 ‘공공기술민간이전 촉진을 위한 IP정책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제7회 국가 R&D P포럼을 개최했다.

국가 R&D P포럼은 전략적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나 제도 등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일본 PDP 모듈 출하량 1년 만에 다시 한국 추월

일본의 PDP 모듈 출하량이 다시 한국을 앞질렀다.

디스플레이 및 태양광 발전 시장전문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대표 권상세

www.displaybank.com)는 ‘월간 PDP 모듈 출하 데이터’ 리포트를 통해 일본의 PDP 모듈 출하량이 7월에 62만대를 기록하며, 55만대에 그친 한국을 12개월 만에 다시 앞질렀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부진했던 일본 업체들의 출하량이 3분기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히타치가 32인치 HD의 새로운 라인업을 추가하는 등, 출하량 증가에 힘쓰고 있다. 반면 한국 업체들은 7월 들어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현재까지 PDP 모듈 시장은 한국과 일본이 시장을 양분해 치열한 경쟁구도를 이뤄왔다. 여기에 올해 말 새롭게 가동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의 COC와 또 다른 중국업체인 난징 후아시안(Nanjing Huaxian)이 추가되면 내년 이후에는 한·중·일의 삼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